

한국의 초등학교 바른생활과 교육과정과 일본의 1, 2학년 도덕 교육과정의 비교

서 보 윤(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바른생활과 교육과정과 일본의 1, 2학년 도덕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바른생활과를, 일본의 경우는 2008년 학습지도요령의 1, 2학년 도덕 교육과정을 기초로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교육과정은 목표, 시간배당,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국 교육과정의 공통점으로는 교육목표에서 양국 모두 도덕적 가치, 판단력, 실천의욕 및 태도를 강조한다는 것과, 교육내용에서 양국 모두 기본생활습관, 예절, 배려, 생활규범과 관련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의 차이점으로는 교육 내용에서 한국은 기본생활습관의 형성과 관련해서 기본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기본학습습관 형성의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은 개인의 건강, 안전, 절약, 근면 등과 같은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내용만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은 규범과 관련하여 차례와 질서 지키기와 같은 사회생활 규범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정직, 근로, 용기 등과 같은 개인생활 규범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초로 한국의 바른생활과 교육과정 개발의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 바른생활, 도덕, 교육과정, 한일비교

I. 서론

초등학교 1, 2학년 바른생활 교과는 통합교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hyogoseo@hanmail.net

해 왔다. 즉, 1981년 제4차 교육과정 시기는 도덕, 국어, 사회를 통합한 바른생활 교과서로 출
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교육과정 수준에서 바른생활과가 정식으로 교과로 설정되
었으며, 도덕과 사회의 통합 교과로 구성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 시기는 사회가 분리되어 도덕
적 요소로만 바른생활과가 구성되었다. 그 후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서는 바른생활과 교육 내
용을 기존의 생활영역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 바른생활과가 저학년 도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범교과적 통합교과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를 기존의 영역과 내용 요소로 제시되던 것을 대주제, 활동주제, 제재요소의 3단계로 구성
하여 주제 중심으로 범교과적 내용을 통합하고자 하였다(정광순, 2009). 그리고 현재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른생활과의 통합교과로서의 성격을 명료화하여 교과에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바른생활과는 지난 30년 동안 통합교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교육
과정이 개정될 때 마다 조금씩의 변화와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서 교육내용에서 과
거 덕목 중심의 교육내용에서 벗어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강조되
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른생활과가 여전히 초등학교 저학년 도덕
과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정보주, 2007).

일본의 경우는 1958년 교육과정 개정부터 이번 2008년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기까지 10년
단위로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도덕 교육의 방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즉, 도덕교육을
특정 교과를 통해서 시키지 않고 교과 및 특별활동 등의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서 시킨다는 것
이다. 그리고 교과 외에 도덕 시간을 두어 도덕 교육을 보충, 심화, 통합하여 가르치게 하였다
(文部科學省, 2008a). 일본의 도덕 교육은 개정 때마다 조금씩 강조되어 왔는데, 특히 이번
200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는 집단 따돌림,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교실붕괴, 은둔형 외
톨이 등의 문제로 더욱 강화되었다. 일본에서는 2008년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앞서 도덕에 대
한 정식 교과화(教科化)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있었으며, 수차례의 논의 끝에 결국 정식 교과
화는 보류되었으나 도덕교육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들이 학습지도요령에 크게 반영되었다(新谷,
2008).

일본의 도덕 교육의 성격을 살펴볼 때 통합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 예로서 2008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도덕 시간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 시간에 있어서는 이상의 도덕교육의 목표에 기초를 두고 각 교과, 외국어활동, 총합적인
학습의 시간 및 특별활동에 있어서의 도덕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도모하면서 계획적, 발전적인 지
도에 의해 이를 보충, 심화, 통합하여 도덕적 가치의 자각 및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
여 도덕적 실천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한다.” (文部科學省, 2008b, p. 28.)

여기에서 도덕 시간은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을 보충, 심화, 통합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도덕 시간에서는 범교과적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의 바른 생활과의 성격과 유사점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OECD 여러 선진국들의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OECD 선진국 중에서 일본은 우리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하고, 학교 교육 체제가 비슷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대부분 기존에 고시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2008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한 비교 연구는 많지 않았다. 부족한 선행연구 가운데서도 이승연(2009)은 일본의 2008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도덕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도덕과 교육과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초등 도덕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양국의 도덕과 교육내용을 심층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구나이유타카(2010)는 일본의 2008년 개정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도덕 교육과정을 목표, 내용, 지도 방법 및 평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한국의 도덕과 교육과정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2008년 개정 도덕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한국의 도덕과 교육과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공통된 준거에 의해서 비교 분석하지는 못하고 전체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의 도덕과 교육과정 비교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교 연구들이 더 필요하며, 특히 단순한 비교 분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에의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같이 교육과정의 문서 체계를 기초로 교육목표, 교육내용, 시간 배당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보다 심층적 분석을 위해서 교육 목표의 비교에서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바른생활과와 교과 외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일본의 1, 2학년 도덕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양국의 교육내용 분석에서는 한국의 바른생활과의 교육내용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덕목적 요소를 추출하고, 일본 1, 2학년 도덕 교육과정 속에 내포하고 있는 가치·덕목적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상호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바른생활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결과적으로 양국이 가르치고자 하는 필수학습요소가 무엇인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등학교 바른생활과 교육과정과 일본의 1, 2학년 도덕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해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한국의 바른생활과와 일본의 도덕 교육과정의 변천

한국의 바른생활과와 일본의 도덕 교육과정의 비교에 앞서, 그 명칭 및 시간 수 등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의 바른생활과와 일본의 도덕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한국의 초등학교 바른생활 및 도덕과 교육과정 변천

구분	내용
교수요목 (1945-1954)	1945: 공민(2), 1946-1954: 사회생활(공민, 역사, 지리가 통합된 교과) 사회생활과를 통한 도덕교육
제1차 교육과정 (1954-63)	사회생활과(사회생활과의 각 학년에 1-3개의 도덕단원을 설정) 도덕교육을 전 교과를 통해서 연간 35시간 배정. 사회생활과가 도덕교육의 중심 역할
제2차 교육과정 (1963-73)	반공 도덕(1-2) 사회과에서 도덕단원을 분리
제3차 교육과정 (1973-81)	도덕(2) 교과로서의 도덕과의 성립
제4차 교육과정 (1981-87)	도덕(2) 1, 2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은 도덕으로 되어 있었으나, 교과서 수준에서 도덕, 국어, 사회를 통합한 '바른생활' 교과서를 통해서 도덕을 가르침.
제5차 교육과정 (1987-92)	1-2학년: 바른생활(4), 3-6학년: 도덕(2) 교육과정 수준에서 바른생활과가 정식으로 통합교과로 설정됨. 바른생활과는 도덕과 사회를 통합한 교과임.
제6차 교육과정 (1992-97)	1-2학년: 바른생활(2), 3-6학년: 도덕(1) 바른생활에서 사회과 요소가 분리되어 도덕과 요소만으로 편성됨.
제7차 교육과정 (1997-2007)	1-2학년: 바른생활(2), 3-6학년: 도덕(1) 바른생활과는 도덕과 요소를 중심으로 한 통합 범교과적 성격을 가짐.
2007년 개정교육과정	1-2학년: 바른생활(2), 3-6학년: 도덕(1) 바른생활과는 도덕과 요소를 중심으로 한 통합 범교과적 성격을 가짐.
2009년 개정교육과정	1-2학년: 바른생활(2), 3-6학년: 도덕(1) 바른생활과는 도덕과 요소를 중심으로 한 통합 범교과적 성격을 가짐.

주. ()는 주당 평균 수업 시수를 표시함.

〈표 1〉을 보면, 한국의 경우 바른생활과는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의 시기에 도덕, 국어, 사회의 통합 교과서로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교육과정 차원에서 바른생활과의 교육과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바른생활과의 교육과정이 비로소 만들어진 시기는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도덕과 사회적 요소를 통합한 바른생활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시기는 사회적 요소가 분리되어 도덕적 요소만으로 바른생활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시기는 바른생활과 교육과정이 지금까지는 생활영역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이를 활동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바꾸고 범교과적 통합 교과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른생활과의 내용체계가 영역과 내용요소의 2단계에서 대주제, 활동주제, 제재요소의 3단계로 구성하고 주제 중심의 통합교과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과로서의 바른생활과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바른생활과의 수업 시수는 기본적으로 주당 평균 2시간이었다.(김수천, 2002; 권혁환, 2005; 정광순, 2009)

다음으로, 일본의 도덕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일본의 초등학교 도덕 교육과정의 변천

구분	내용
1947	편제: 교과, 자유연구
	도덕 교육은 사회과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이념을 근간으로 지도함.
1951	편제: 교과,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구분
	'도덕교육을 위한 지침서 요항'을 발표하여 도덕교육을 위한 특정 교과를 두지 않고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도덕교육을 실시함.
1958 (소화 33년)	편제: 교과, 도덕의 시간, 특별교육활동, 학교 행사 등
	도덕의 시간이 교과 외 활동으로 신설됨. 도덕의 시간: 제1학년 34(1), 2-6학년 35(1)
1968 (소화 43년)	편제: 교과, 도덕의 시간, 특별활동
	도덕의 시간: 제1학년 34(1), 2-6학년 35(1)
1977 (소화 52년)	편제: 교과, 도덕의 시간, 특별활동
	도덕의 시간: 제1학년 34(1), 2-6학년 35(1)
1989 (평성 원년)	편제: 교과, 도덕의 시간, 특별활동
	도덕의 시간: 제1학년 34(1), 2-6학년 35(1)
1998 (평성 10년)	편제: 교과, 도덕의 시간, 특별활동, 종합적 학습
	도덕의 시간: 1학년 34(1), 2-6학년 35(1)
2008 (평성 20년)	편제: 교과, 도덕의 시간, 특별활동, 종합적 학습 시간, 외국어 활동의 수업
	도덕의 시간: 1학년 34(1), 2-6학년 35(1)

주. ()는 주당 평균 수업 시수를 표시함.

〈표 2〉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1951년 개정에서 ‘도덕교육을 위한 지침서 요항’의 발표를 통해서 도덕교육을 특정 교과목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고,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전반을 통해서 도덕 교육을 할 것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도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1958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처음으로 도덕 시간을 신설하여 도덕교육을 보충, 심화, 통합하여 가르치고자 하였다. 도덕 시간은 1958년 교육과정 개정의 시기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8년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기까지 명칭이나 수업시수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수업시수는 주당 평균 1시간 정도였다(박남수, 2004; 정미라, 2000; 吉田, 田中, 細戸, 2010).

Ⅲ. 한국의 바른생활과와 일본의 도덕 교육과정의 비교

1. 교육목표의 비교

한국의 초등학교 바른생활과와 일본의 초등학교 도덕 교육과정의 목표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한국과 일본의 교육목표 비교

구분	총괄목표	하위목표
한국 1,2 학년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형성한다.	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초보적인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른다.
		나.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지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꾸준히 실천한다.
일본 1-6 학년 전체	도덕교육의 목표는, 제1장 총칙의 제1의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도덕적인 심정, 판단력, 실천의욕과 태도 등의 도덕성을 기르는 것으로 한다. 도덕 시간에 있어서는 이상의 도덕교육의 목표에 기초를 두고 각 교과, 외국어 활동,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및 특별활동에 있어서의 도덕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도모하면서 계획적, 발전적인 지도에 의해서 이를 보충, 심화, 통합하여 도덕적 가치의 자각 및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여 도덕적 실천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한다.	

〈표 3〉을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 1, 2학년 바른생활과의 교육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습관, 예절, 규범의 습득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그 하위 목표에서는 기본적인

인 생활습관, 예절, 규범의 이해, 초보적인 가치 판단 능력, 태도, 꾸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한편, 일본의 경우는 도덕교육을 특정 교과목을 통해서 가르치기보다는 각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실시한다. 하지만, 도덕교육을 보다 계획적이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한 보충, 심화,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해서 도덕 시간을 교과 외에 두고 있다. <표 3>에서 일본의 도덕 교육의 목표는 도덕적인 심정, 판단력, 실천의욕과 태도 등의 도덕성을 기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도덕적 심정이란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느끼고, 선을 행하는 것의 기쁨과 악을 미워하는 감정을 말한다(文部科學省, 2008b).

한국의 바른생활과의 교육목표와 일본의 도덕의 교육목표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바른생활과의 총괄목표 및 하위목표를 종합적으로 보면, 기본생활습관, 예절, 규범의 이해, 초보적인 가치 판단 능력, 태도,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도덕적 심정, 판단력, 실천의욕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한국의 경우는 기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으로 세분화 시켜서 제시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도덕적 심정이라는 비교적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의 바른생활과 교육목표의 경우는 기본생활습관이라는 통합 교육적 요소를 강조한 반면, 일본의 도덕 교육목표는 도덕적 심정이라는 표현처럼 도덕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시간배당의 비교

한국의 초등학교 바른생활과와 일본의 도덕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을 비교하면, <표 4>, <표 5>와 같다.

<표 4>를 보면, 한국의 바른생활과는 교과로 분류되며, 학년별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2시간 정도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에 비해 <표 5>를 보면, 일본의 도덕은 교과 외로 분류되며 주당 1시간 정도이다(文部科學省, 2008a). 단지 일본의 경우는 각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전체를 통해서 도덕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덕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보충, 심화, 통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한국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과(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수학 256	272	272
	수학	바른 생활 128	272	272
	과학/실과	즐거로운 생활 192	204	340
	체육	즐거로운 생활 384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표 5〉 일본의 2008년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편제

구분	각 교과의 수업시수									도덕의 수업 시수	외국어 활동의 수업 시수	종합적 학습의 시간 수업 시수	특별 활동의 수업 시수	총 수업 시수
	국어	사회	산수	이과	생활	음악	도화 공작	가정	체육					
제1학년	306	/	136	/	102	68	68	/	102	34	/	/	34	850
제2학년	315	/	175	/	105	70	70	/	105	35	/	/	35	910
제3학년	245	70	175	90	/	60	60	/	105	35	/	70	35	945
제4학년	245	90	175	105	/	60	60	/	105	35	/	70	35	980
제5학년	175	100	175	105	/	50	50	60	90	35	35	70	35	980
제6학년	175	105	175	105	/	50	50	55	90	35	35	70	35	980

* 이 표의 수업시수의 1단위시간은 45분으로 한다.

3. 교육내용의 비교

한국의 바른생활과와 일본의 초등학교 1, 2학년 도덕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하면 <표 6>, <표 7>과 같다.

<표 6> 한국의 바른생활과의 교육내용 분석

구분	대주제	활동주제	제재요소	주요 가치 덕목 등
1 학 년	내 일 스스로 하기	• 몸 깨끗이 하기	손발 자주 씻기, 바르게 이 닦기, 자주 목욕하기	청결
		• 자세 바르게 하기	바르게 앉고 서기, 바르게 걷기, 바른 자세로 공부하기	바른자세
		• 스스로 준비하기	준비물 미리 챙기기, 주어진 과제 스스로 하기	스스로하기
	예절 지키기	• 바르게 인사하기	상대방에 알맞게 인사하기, 때와 장소에 알맞게 인사하기,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	인사 예절
		• 바르게 식사하기	식사 도구 바르게 다루기, 음식 골고루 먹고 남기지 않기, 바른 자세로 식사하기	식사 예절
	다른 사람 생각하기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친구의 좋은 점 이야기하기, 친구와 다투었을 때 화해하기,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	우정 및 서로도움
		• 여럿이 함께 쓰는 물건 소중히 다루기	학교와 학급의 물건 아끼고 소중히 다루기, 공공장소의 물건 아끼고 소중히 다루기	공공의식
		• 환경을 보호하기	쓰레기 양 줄이고 잘 치우기, 분류배출하기, 재활용품 활용하기	환경보호
	질서 지키기	• 차례 지키기	학교에서 차례 지키기, 차를 타고 내릴 때 차례 지키기, 공공장소에서 차례 지키기	차례
		• 규칙 지키기	학급 및 학교 규칙 바로 알기, 학급 및 학교 규칙 잘 지키기	규칙
	나라 사랑하기	•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사랑하기	태극기의 중요성을 알고 바르게 달고 보관하기, 애국가를 부를 때와 들을 때의 바른 예절 실천하기, 무궁화 사랑하기	나라사랑

구분	대주제	활동주제	제재요소	주요 가치 덕목 등
2 학 년	내 일 스스로 하기	• 몸차림 단정히 하기	옷 단정하게 입기,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 입기, 신발 바르게 신기	청결
		• 물건을 아끼고 정리 정돈하기	내 물건과 공공 물건 아끼기, 학용품과 생활용품 정리 정돈하기, 내가 쓰는 방 스스로 정리하기	정리 정돈
		• 자기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	가정과 학교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알기,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컴퓨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기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
	예절 지키기	•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인터넷 상에서 바르고 고운말 쓰기, 바른 태도로 말하기	언어예절
		• 가족끼리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기	집안 어른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기, 형제 간에 사이좋게 지내기,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집안 일 돕기	가족애(효도, 우애 등)
	다른 사람 생각하기	•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약속 지키기	다른 사람 배려하기, 약속 지키기, 다른 사람의 생각 존중하기	배려와 존중
		•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기	이웃 간의 예절을 알고 다정하게 지낸다.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기
		• 생명을 보호하기	동식물 사랑하기, 생명의 소중함 알기	생명 존중
	질서 지키기	• 교통질서와 규칙 지키기	교통 신호와 표시 알기, 거리에서의 안전 생활 실천하기	교통질서
		• 공공장소에서 질서 지키기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장소에 따라 정해진 규칙 지키기	공공질서
	나라 사랑하기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소중히 하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 알기,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를 아끼고 보존하는 자세 가지기	나라사랑
		• 통일에 대하여 관심 가지기	북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알기,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에 대해 관심 가지기, 통일의 필요성 이해하기	통일

〈표 7〉 일본의 초등학교 1,2학년 도덕 교육내용의 분석

영역	내용요소	주요 가치 덕목 등
주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	• 건강이나 안전에 조심하고, 물건이나 금전을 소중히 하고, 자신 주위를 정리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규칙 바르게 생활한다.	건강, 안전, 절약, 정리정돈, 절제, 규칙바른 생활
	• 자신이 해야 할 공부나 일을 확실하게 한다.	근면·노력
	• 옳은 일과 나쁜 일을 구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용기
	•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하지 않고, 바르고 활기차게 생활하다.	정직·명랑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	• 기분 좋은 인사, 말씨, 동작 등에 마음을 담아서 하고, 밝게 대한다.	인사와 언어 예절
	• 어린 사람이나 고령자 등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배려와 친절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와준다.	우정 및 서로도움
	• 평소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감사
주로 자연이나 송고한 것과의 관계에 관한 것	• 삶의 즐거움,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진다.	생명 존중
	• 가까운 자연에 친근함을 가지고, 동식물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	자연애, 동식물 애호
	• 아름다운 것을 대하면 감동하는 마음을 가진다.	경건
주로 집단이나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것	• 약속이나 규칙을 지키고,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물건을 소중히 한다.	약속과 규칙 지키기, 공공의식
	•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모두를 위해서 일한다.	근로
	• 부모, 조부모를 경애하고, 스스로 집안일 등을 도우며, 가족을 도우는 일의 즐거움을 안다.	가족애
	• 선생님을 경애하고, 학교의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며, 학급이나 학교의 생활을 즐겁게 한다.	애교심
	• 향토의 문화나 생활에 친근함과 애착을 가진다.	향토애

〈표 8〉 한국과 일본의 주요 가치 덕목의 비교

구분	한국	일본
기본생활습관	정리정돈, 청결, 바른 자세,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	정리정돈, 건강, 안전, 절약, 절제, 규칙바른 생활 근면·노력
예절	인사예절, 언어예절, 가족애(효도, 우애, 화목) 식사예절,	인사와 언어예절 가족애(경애, 서로 도움 등) 애교심(경애, 즐거운 학교생활 등)
배려	우정 및 서로도움, 공공 의식, 배려와 존중, 생명존중(동식물 애호 등) 환경보호,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기,	우정과 서로도움, 공공 의식, 배려와 친절, 생명존중, 동식물 애호, 자연애, 경건, 감사
생활 규범	규칙, 차례, 교통질서, 공공질서	약속과 규칙 지키기, 용기, 정직, 근로
국가 사회적 요구	나라사랑, 통일	향토애

주. 밑줄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유사한 내용을 나타냄.

먼저 〈표 6〉의 한국의 바른생활과의 교육내용을 보면, 한국은 1학년과 2학년의 교육내용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내용 체계가 대주제, 활동주제, 제재요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다음으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분석해 볼 때, 대주제 ‘내 일 스스로 하기’는 기본생활습관과 관련성이 깊으며, ‘예절 지키기’는 예절과 관련성이 깊으며, ‘다른 사람 생각하기’는 공동체적 삶의 자세인 배려와 관련성이 깊으며, ‘질서 지키기’는 생활 규범과 관련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 ‘나라 사랑하기’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국가 사회적 요구와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표 6〉의 주요 가치 덕목은 대주제, 활동주제, 제재요소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가치 덕목 및 기본생활습관을 선택하여 기술하였다.

한편, <표 7>의 일본의 도덕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1학년과 2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학년군으로 묶어서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인 내용 체계를 보면 영역과 내용 요소로 구성하고 있으며, 내용요소는 성취기준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08b).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주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 '주로 자연이나 숭고한 것과의 관계에 관한 것', '주로 집단이나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것'의 네 영역 모두는 한국과 동일하게 기본생활습관, 예절, 배려, 생활 규범 등의 내용을 각 영역별로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 <표 7>의 주요 가치 덕목은 기본적으로 押谷, 福田(2008)의 가치 덕목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면서 영역 및 내용요소와 가장 관련이 깊은 가치 덕목 및 기본생활습관을 선택하여 기술하였다.

<표 8>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가치 덕목을 기본생활습관, 예절, 배려, 생활 규범, 국가 사회적 요구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표 8>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많은 가치 덕목에서 유사한 점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예절이나 배려의 항목에서는 몇몇 가치 덕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치하였다. 하지만, 기본생활습관, 생활 규범, 국가 사회적 요구 항목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가치 덕목도 있었지만, 국가별로 강조하는 가치 덕목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본생활습관 항목에서의 차이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바른 자세,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와 관련한 제재요소를 살펴볼 때, 기본학습습관과 관련된 내용을 상당부분 강조하고 있었다. 즉, 한국의 기본생활습관은 청결, 정리정돈과 같은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자세,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와 같은 기본학습습관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경우는 건강, 안전, 절약, 절제, 규칙바른 생활, 근면·노력 등과 같은 개인생활습관과 관련한 내용들로 대부분 구성하고 있었다.

둘째는 생활 규범 항목에서의 차이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차례나 질서 지키기와 같이 사회생활 규범과 관련한 가치 덕목을 강조하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정직, 근로, 용기와 같은 개인 생활 규범과 관련한 가치 덕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는 국가 사회적 요구 항목에서의 차이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분단 현실과 관련하여 나라 사랑이나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 일본의 경우는 애국심과 같은 내용 요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나오고, 1, 2학년 경우는 향토애 정도의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의 바른생활과 일본의 도덕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바른생활 교육과정을, 일본의 경우는 2008년 학습지도요령의 1, 2학년 도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시간배당,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교육과정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양국 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한 후에, 앞으로 바른생활과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바른생활과 일본의 도덕 교육과정의 공통점에 대해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표에서 양국 모두 도덕적 가치, 판단력, 실천의욕 및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도덕적 가치로서 예절, 배려, 생활 규범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도덕적 심성이라는 비교적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도덕적 심성 역시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정의를 생각할 때, 도덕적 심성 역시 한국의 예절, 배려, 생활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한국의 바른생활과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서 기본생활습관도 교육목표에서 강조하고 있었다. 비록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양국의 교육목표에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다고 말할 수 있겠다.

둘째, 교육내용에서 양국 모두 기본생활습관, 예절, 배려, 생활 규범의 내용 요소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내일 스스로 하기'는 기본생활습관과 관련성이 깊으며, '예절 지키기'는 예절과 관련성이 깊으며, '다른 사람 생각하기'는 배려와 관련성이 깊으며, '질서 지키기'는 생활 규범과 관련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주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 자연이나 숭고한 것과의 관계에 관한 것, 집단이나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것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각 영역별로 추구하는 주요 가치 덕목을 분석한 결과, 기본생활습관, 예절, 배려, 생활 규범의 내용으로 모두 분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내용은 모두 기본생활습관, 예절, 배려, 생활 규범의 네 가지 요소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바른생활과 일본의 도덕 교육과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체계의 측면에서 한국은 1학년과 2학년을 구분하고 있으며, 대주제, 활동주제, 제재요소의 3단계로 구분해서 교육내용을 진술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경우는 1, 2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영역과 내용요소의 2단계로 구분해서 교육내용을 성취기준 형식의 문장으로 진술하고 있었다. 한국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할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서 개발 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제약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성취기준 형식으로 제시할 경우 교

과서 개발에 있어서 융통성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1, 2학년의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개발할 경우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융통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된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본생활습관과 생활 규범의 영역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먼저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해서 한국은 청결, 정리정돈과 같이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자세,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와 같이 기본학습습관이 함께 내포되어 있었다. 즉, 한국은 아동의 기본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기본학습습관 형성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는 건강, 안전, 절약, 절제, 규칙바른 생활, 근면·노력과 같이 대부분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는 한국의 바른생활과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생활습관 형성뿐만 아니라 기본학습습관 형성까지도 고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도덕 교육은 교수학습 차원에서 타 교과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내용 자체에서는 도덕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규범과 관련해서 한국은 사회생활 규범과 관련한 차례나 질서 지키기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개인생활 규범과 관련한 정직, 근로, 용기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니이유타카(2010)는 일본은 한국에 비해 근로의 가치를 보다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한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4, 5학년에 근로와 비슷한 교육 내용이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라고 볼 수 없으며, 중학교 2학년이 되어야 비로소 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내용이 나온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에 이르는 전단계에서 근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과 일본 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기초해 볼 때, 한국의 바른생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육 내용의 진술에 있어서 일본과 같이 성취 기준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처럼 대주제, 활동주제, 제재요소의 형식으로 내용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제약이 많으며, 교사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생에게 가르칠 때도 내용 선정에 있어서 제약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처럼 성취 기준 형식으로 진술하게 된다면, 교사의 교육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많으며, 구체적으로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도 융통이 많아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1, 2학년 교육과정을 분리해서 개발하기 보다는 1, 2학년을 묶어서 학년군 단위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학년군 단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도 학년군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정을 학년군 단위로 개발할 경우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는 바른생활과에서 기본학습습관을 보다 강조할 필요성이 있겠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지 기본생활습관 속에 기본학습습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본학습습관을 기본생활습관에서 분리하여 보다 강조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이 학생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기본학습습관을 기본생활습관에서 분리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있겠다. 기본 학습 습관으로는 가정에서의 학습 습관과 학교에서의 학습 습관으로 구성될 수 있겠다. 가정에서의 학습 습관으로는 공부 시간 정하기, 숙제 완성하기, 준비물 챙기기, 스스로 숙제하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학습 습관으로는 짝 혹은 모둠 활동하기, 학습 자료 관리하기, 질문하기, 바로 읽기, 교사의 말에 경청하기, 주의 집중하기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11). 이처럼 앞으로 바른생활과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는 건강, 안전, 절약, 정리정돈과 같은 기본생활습관과 더불어 가정 및 학교에서의 기본학습습관을 동일하게 강조함으로써 통합교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수천(2002).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 교과체계 변천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0(2), 149-178.
- 권혁환(2005).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 **도덕윤리과교육**, 20, 43-68.
- 정광순(2009). 주제 중심의 초등통합교과 교육의 구현 가능성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 3(1), 35-58.
- 정보주(2007). 바른 생활과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24, 3-27.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 서울 : 미래엔 컬처그룹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서울 : 사회복지법인 흥애원
- 구니이유타카(2010). 일본 2008년 개정 도덕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고찰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31, 317-350.
- 박남수(2004). 초기 사회과에 있어서의 도덕교육의 성격. **사회과교육연구**, 11(2), 123-140.
- 이승연(2009). 일본 초등학교 도덕과 내용체계에 관한 소고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29, 203-226.
- 정미라(2000). 일본에 대비한 우리나라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18(2), 69-97.
-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2011). **2009 개정 초등통합교과교육과정[시안] 공청회 자료집**. 충북 : 한알
- 新谷恭明(2008). **2008年版學習指導要領を讀む視點**. 東京 : 白澤社.
- 押谷由夫, 福田富美男(2008). **小學校 新學習指導要領の展開 道德編**. 東京 : 明治圖書.
- 文部科学省(2008a).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總則編**. 東京 : 東洋館出版社.
- 文部科学省(2008b).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道德編**. 東京 : 東洋館出版社.
- 吉田武男, 田中マリア, 細戸一佳(2010). **道德教育の變成と課題**. 東京 : 學文社.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Moral Life Curriculum of Korea and Morals Curriculum of 1st and 2nd Graders of Japan

Bo-Yun, Seo

(Educational Supervisor,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implications on curriculum development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Moral Life curriculum of Korea and morals curriculum of Japan.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based on the 2007 revised Moral Life curriculum of Korea and the 2008 revised morals curriculum of Japan. The curriculum of the two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purpose, assigned time and contents. As a result, the similarities of the curriculum of the two countries were that they both emphasized moral values, determination, practice and attitude. Also, both of their contents were composed of basic life practices, manners, consideration and norms. However, the differences regarding contents were that when teaching basic life practices, Korea included cultivation of basic learning practices along with basic living practices while those of Japan only had information regarding basic living practices such as personal health, safety, frugality and diligence. In addition, Korea emphasized maintaining order regarding norms while Japan focused on honesty, labor and courage. Finally, there suggested various points of improvement on developing the Moral Life curriculum of Korea based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Korea and Japan.

Key Words : Moral Life, morals, curriculum,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